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ehold Investment Planning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법 수 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교수문숙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Soo-In Burm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Jae Moon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the household invest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to improve the household investment planning process, and to develop research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Household investment planning varied with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because the stock of resources shifted and financial goals changed as the family life cycle stage changed. The main financial goals of family in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were the purchasing of house in the establishing stage, children's education and marriage in the extending stage, and the elderly's economic welfare in the diminishing stage. Also, in the I & II stage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goals were the purchasing of house, children's education in the III stage, children's marriage in the IV stage, and the elderly's economic welfare in the V stage. Therefore, the financial goals wer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goals underlain the investment-planning goals, and alternatives for the accomplishment of investment-planning goals wer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 the long-run investment planning process and improve the level of household's financial well-being.

I. 문제의 제기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은 가족 개개인의 발달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두고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함은 물론 가족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의 설정 및 수행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족 자원을 가족원의 욕구와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정의 경제는 가족생활의 변화와 물가나 임금, 금융 같은 경제 및 사회정책, 교육 등 가정적, 사회적 요소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경제의 운영에는 장기적인 균형이 요구되는데, 변화하는 가족생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 가정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주택구입, 자녀의 결혼, 노후의 생계 등 중요 지출항목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동일단계의 소득이 같은 정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흐름과 소비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제적 사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하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여 장기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¹⁾ 이러한 장기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원 사용의 일부가 현재 목표 달성이나 현재 소비 지출에서 미래 소비를 위한 자원 개발의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계획은 자산 증식을 위한 계획 행동이며, 미래의 효용 창출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절제하는 적절한 자원 분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²⁾ 가계투자계획은 가계의 경제적인 요구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가족생활주기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재정계획

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며,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 가계 재정계획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가계 계획에 관한 연구는 가족구성과 사회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포함하여 가족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정해 왔으며, 가족 예산 설정 분야에서는 재정계획을 사용하고 있는 가족의 비율, 재정계획 결정에 주부가 미치는 영향력, 가계 복지에 미치는 재정계획의 영향, 재정 상담과 계획에 관한 연구(Ward, Wackman과 Warella, 1977; Blumstein과 Schwartz, 1983; Retting, 1984; Davis와 Helmick, 1985)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계획 과정의 특성이 가족생활주기를 통해서 변화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며, 특별한 계획 과정의 측면과 가족생활주기 단계와의 이론적 연결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자 영역과 계획 영역에서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실태를 파악하고 가계의 투자계획과 관련있는 사회경제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특성과 주요 경제목표를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가계 투자계획과정의 개선과 재정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가계 재정계획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가정학 교육자나 가계 재정 상담자에게 가계의 재정계획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부각되는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계의 장기투자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리과정으로서의 계획

계획(planning)은 Deacon과 Firebaugh(1988), Gross,

Crandall과 Knoll(1980), Paolucci, Hall과 Axinn(1977)에 의해 발달된 가족 자원관리모델의 주요 관리과정이다. 관리체계의 일부분으로서의 계획(planning)은 관리체계의 투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서 개념화되어 왔다.

Deacon과 Firebaugh는 계획을 목표추구를 위하여 행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초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¹⁰ Rice와 Tucker는 계획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안을 고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목표와 표준을 제시하였는데,¹¹ 목표는 계획에 방향과 목적을 부여하며 표준은 목표달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과정적 표준), 달성된 목표에 예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준다(수행 표준).¹²

계획에 포함되는 활동에 대해 Gross, Crandall과 Knoll은 표준 설정, 정보 수집, 활동 배열을 제시하고, Deacon과 Firebaugh는 표준 설정과 활동 배열을 포함시켰으며, Paolucci, Hall과 Axinn은 가치명료화까지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¹³ 또한 Rice와 Tucker는 계획수립 과정을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표준 설정, 활동 배열로 보고 있다.¹⁴

계획의 유형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안정지향적 계획과 변화지향적 계획, 자원중심계획, 목표중심계획, 제한된 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은 계획에 포함되는 시간적인 장단에 기인하는 구분으로, 목표달성이 요구되는 시간의 정도가 계획안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획의 영역에 따라 계획기간이 달라진다. 일상적인 일은 단기계획을 세우며 주택구입 등은 수년에 걸친 중기계획을 세우고, 생활의 질 향상에 관한 계획은 일생을 통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Nickell, Rice와 Tucker는 밝히고 있다.¹⁵ Beard와 Firebaugh¹⁶는 경제유지의 개방 정도, 표준설정과 순서결정의 융통성 정도, 현가족 체계에 관련 정도 및 새로운 욕구에의 적용 정도에 따라 안정지향적(morphocentric) 계획과 변화지향적(morphogenic) 계획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Buchler와 Hogan¹⁷은 계획의 유형을 자원중심(resource-centered)계획, 목표 중심(goal-centered)계획, 제한된 (constrained)계획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계획의 차원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데, Deacon과 Firebaugh¹⁸는 계획의 차원을 계획의 일반성, 계획기간, 계획범위, 계획안 사용의 반복성 등 4차원으로 분류하고 있고, Gross, Crandall과 Knoll¹⁹은 Le-Breton과 Henning의 분류 중 9가지를 채택하여 복잡성, 크기, 중요성, 포괄성, 기간, 상세성, 완전성, 융통성, 밀접성을 계획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연숙²⁰의 연구에서는 계획의 차원을 계획의 참여형태, 계획기간, 계획의 중요성, 계획의 상세성, 계획의 융통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계획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범주와 활동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획은 목표 추구를 위하여 행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요구와 자원에 의해서 영향 받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으며, 계획의 영역을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목표의 표준설정으로 분류하고, 과정적 표준에 근거하여 목표의 표준설정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의 표준설정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

1) 가족생활주기

가족의 발달과정은 사회적, 정서적 및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가족이 생애의 일정기간을 보내는 동안 거치게 되는 특정한 단계의 연속을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라고 한다.

¹⁴⁾ 가족생활주기는 가정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족생산의 목표를 설정하여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제문제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예측하므로써 가정생활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¹⁵⁾ 장기 가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몇몇 요인에 따라 몇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흔히 사용되는 가족생활주기의 정의는 자녀의 연령 및 자녀의 존재와 관련된다.¹⁶⁾ Bigelow는 가정의 수입·지출과 자녀의 교육상태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7단계로 분류하였으며, Duvall은 인간발달이론에 입각하여 첫아이의 연령과 학년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8단계로 구분하였다.¹⁷⁾ 또 가족생활주기를 크게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의 세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하위단계를 두어서 총 8단계로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한 Nickell 등¹⁸⁾과, 가족생활주기를 가구형성 및 생활기반 정착기, 가계생활 신장기, 안정기 및 세대교체기의 세단계로 분류한 한국인의 장기생활 설계연구¹⁹⁾에서는 소득과 지출 흐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 가계계획을 세우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생활주기는 문헌이나 자료를 통한 이론에 기초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가족생활주기는 우리나라 가정생활의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가족생활주기를 설정한 유영주²⁰⁾의 분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I 단계(형성기) : 결혼부터 첫자녀의 출산전시기
- ② II 단계(자녀출산 및 양육기) : 첫자녀 출산으로부터 첫자녀 국민학교 입학전시기
- ③ III 단계(자녀교육기) : 첫자녀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기
- ④ IV 단계(자녀성년 및 결혼기) : 첫자녀의 대학교육, 취업, 군복무, 가사 협조시기와, 첫자녀 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시기
- ⑤ V 단계(노년기) : 막내 자녀의 결혼 이후 시기

2) 가계의 투자계획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가족생활주기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Ando와 Modigliani의 생애주기설(life cycle hypothesis)은 가족생활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소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데, 생애주기가 설에 따르면 소비의 흐름은 대체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소득의 흐름은 점차 상승하여 장년기 또는 은퇴직전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다시 하락하는 포물선을 나타낸다.²¹⁾ 이와 같이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소득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현재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복지의 달성을 하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계관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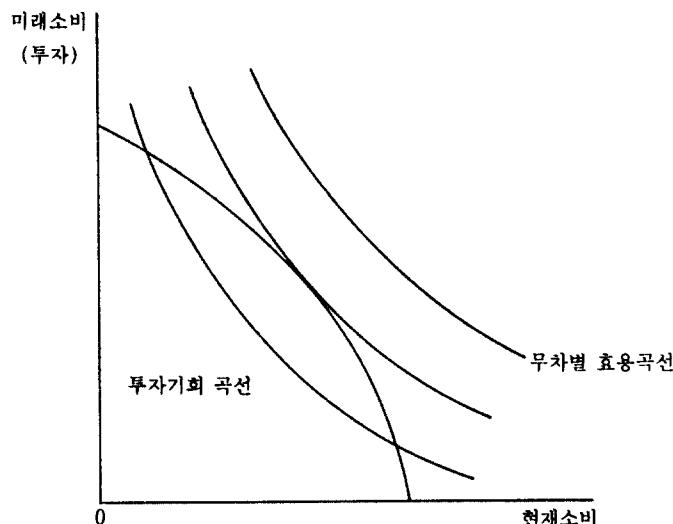
하게 된다.²²⁾ 체계적 접근법에 의해 가계관리를 설명하는 Deacon과 Firebaugh²³⁾는 투입요소로서 우선 가족의 경제적인 목표 설정을 제시하였고, 문숙재,²⁴⁾ 최현자와 최은숙²⁵⁾의 연구에서는 각 생활주기별 목표인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주택 구입, 자녀의 결혼, 노후의 생계 등으로 인한 지출에 대비하여 장·단기의 가계관리계획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가계의 여러가지 재무적 행동 가운데 가계투자행동은 가계 재무 수단을 생산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가정의 욕구충족의 목표에 기여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²⁶⁾ 가계관리의 재무적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이며 가계관리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전회²⁷⁾는 이러한 가계투자행동을 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선택, 분산 투자, 투자대상의 매매시기 등 투자관리(investment management)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는 재무적 압박간의 균형을 통해서 가계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계의 최적투자결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불확실성하에서 투자의 성과는 수익률로 표시되고 수확체감의 법칙을 반영하여 투자기회곡선(investment opportunity curve)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곡선은 투자계획을 의미하며 이 계획은 효용과 일치하여야만 비로소 선택될 수 있다.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행동하므로, 시간적으로 최적의 투자유형은 투자의 한계수익률과 개인 및 가계의 시차선회율이 같아질 때 이루어진다²⁸⁾〈그림 1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의 투자계획은 현재 소비 욕구의 강도와 소득의 제약, 미래 재정목표의 강도, 재정목표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따라 가계가 인지하는 두사의 유효성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제목표를 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현재와 미래 경제목표로서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예상되는 재정적인 사건이나 문제로 정의하고, Williams와 Manning,²⁹⁾ 김영숙,³⁰⁾ 문숙재,³¹⁾ 홍향숙과 이기춘,³²⁾ Varcoe³³⁾의 연구를 참고로 총 11개 항목 — 자녀출산 및 양육문제, 자녀교육비문제, 자녀결혼자금문제, 주택문제, 내구재·생활용품의 구입문제, 여가비용문제, 건강 및 의료비문제, 노후생활문제, 빚청산문제, 사업자금문제, 기타 — 을

〈그림 1〉 소비와 투자의 최적 유형



출처 : 이성순, 「현대투자론」, 1984, p.34.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계투자계획은 가계가 현재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 복지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저축이나 투자계획을 의미하며, Deacon과 Firebaugh³⁴⁾의 계획과, Rice와 Tucker³⁵⁾의 경제자원관리, 투자론의 투자관리³⁶⁾를 근거로 투자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투자목표의 표준설정으로 분류하였다. 투자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에서는 효용극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가계의 시차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와 단기의 여러 목표들 중에서 중요한 투자목표부터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하였고, 투자목표의 표준설정에서는 우선순위로 설정된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투자대상을 언제부터, 얼마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3. 투자계획에 관련된 변수

Beutler와 Sahlberg,³⁷⁾ Buchler와 Hogan,³⁸⁾ Titus, Fanslow와 Hira³⁹⁾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유형 및 순자산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발달과정의 경제적 결정요소 연구에

서는 가족내의 자녀수에 따라 여러 하위 영역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⁴⁰⁾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직업적 지위와 고용상태는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 목표, 자원에 영향 미침으로써 계획과정에 영향을 미치고,⁴¹⁾ 재정자산보유와 저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대부분의 저축·투자행동 연구에서는 소득과 재정자산보유와의 관계,⁴³⁾ 소득과 투자유형과의 관계⁴⁴⁾가 연구되어 왔으며, 총자산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저축목표⁴⁵⁾와 순자산⁴⁶⁾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재윤,⁴⁷⁾ 배무기⁴⁸⁾의 연구에서는 부채수준이 저축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희⁴⁹⁾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목표 설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저축 행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고,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가족의 경제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있는 Sahlberg⁵⁰⁾의 연구에서는 피아드백이 계획실시의 절차(formality of spending plans)를 예고하는 지수라고 하고 있다.

또, 요구로서 가계의 경제목표와 재정적 사건들은 경제계획과 저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병주⁵¹⁾의 장기생활설계 연구에서는 일생에 걸친 소비 패턴 가운데 대표적 애로점이 가구주가 30대 말까지의 전기

에는 주택문제, 40대 이후의 후기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를 연구한 홍향숙과 이기준⁵³⁾은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 속하는 가계는 주택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국민학교기에 속하는 가계는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대학 및 자녀결혼기에 속한 가계는 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노년기에 속하는 가계는 기타 단계들에 속한 가계보다 건강 및 의료비문제 수준과 여가선용문제 수준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부부의 연령, 가족수, 부부의 직업, 가계소득, 재산수준, 부채수준, 미래에 대한 예전, 과거의 투자경험, 주요 경제목표 등이 가계의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문제 1〉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부부 연령, 가족수, 부부 직업, 가계소득, 재산수준, 부채수준) 및 사회심리적 특성(미래에 대한 예전, 과거의 투자경험)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현재 주요 경제목표, 장기 주요 경제목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투자계획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에 따라 가계의 투자계획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측정도구의 구성

측정도구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관한 문항과, 미래

에 대한 예전, 과거의 투자경험에 관한 사회심리적 변수 문항,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에 관한 문항,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에 대한 예전은 Katona⁵⁴⁾의 척도를 근거로 하였으며, 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Type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이다. 과거의 투자경험에서 투자경험 정도는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대상의 수이며, 투자경험 만족도는 투자경험이 있었던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를 파악한 후 그 합한 점수를 경험했던 투자대상의 수로 나눈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한 태도를 나타낸다. 주요 경제목표는 현재(단기)와 장기 주요 경제목표를 알아보기 위한 총 11개 항목을 작성하였다. 가계의 투자계획은 투자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투자목표의 표준설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투자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은 16개 투자목표 중 가장 중요한 투자목표부터 우선순위를 3위까지 설정하게 하였고 투자목표의 표준설정은 과정적 표준⁵⁵⁾에 근거하여 투자대상의 선택, 투자대상의 매입시기, 투자대상의 투자기간, 투자대상의 투자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가정경제 및 가정관리학 분야의 전공자들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예전 척도와 과거의 투자경험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핵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부 중 저축이나 투자계획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가정이나 1인 가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를 주로 보기 위하여 부부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통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1991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후 설문지 일부 문항의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1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550부의 설문지를 가족생활주기, 가구주의 직업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4)

변수	집 단	명	%	변수	집 단	명	%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64	13.5	가 계 소 득	100만원이하	88	18.6
	자녀출산 및 양육기	107	22.6		110~180만원	165	34.8
	자녀교육기	160	33.8		190~250만원	121	25.5
	자녀성년 및 결혼기	108	22.8		260만원 이상	100	21.1
	노년기	35	7.4	집의 소유	자 가 타 가	340	71.7
주 부 연령	29세 이하	105	22.2	제 산 수 준	8,750만원 이하	133	29.4
	30~39세	176	37.1		8,751만원~	181	40.0
	40~49세	105	22.2		4억 4천만원		
	50~59세	72	15.2		4억 4천만원 초과	139	30.7
	60세 이상	16	3.4	부 채 수 준	250만원 이하	27	13.2
남 편 연령	29세 이하	57	12.0	부 유 무	251~500만원	46	22.4
	30~39세	172	36.3		501~1,700만원	53	25.9
	40~49세	124	26.2	부 채 수 준	1,701~3,500만원	49	23.9
	50~59세	88	18.6		3,500만원 초과	30	14.6
	60세 이상	33	6.9		미래에 대 한 예 견	하 중 상	3~ 7점 8~ 9점 10~13점
가족 수	2명	99	20.9	과 거 의	하하	122	25.7
	3명	107	22.6		하상	219	46.2
	4명	185	39.0		상하	133	28.1
	5명 이상	83	17.5		상상		
	전문직	38	8.0		하하	83	17.7
주 부 직업	관리직	5	1.1	과 거 의	하상	177	37.7
	전문·기술직	35	7.4		상하	147	31.3
	사무직	42	8.9		상상	63	13.4
	판매서비스직	17	3.6	투 자 경 체	1.00~2.90	142	30.2
	주 부	337	71.1		2.91~3.38	188	40.0
남 편 직업	전문직	94	19.8		3.39 이상	140	29.8
	관리직	114	24.1				
	전문·기술직	56	11.8				
	사무직	183	38.6				
	판매서비스직	14	3.0				
	무 직	13	2.7				

각 항목의 빈도차이는 결측값(missing value)에 의한 것임.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배부하였다. 수집된 자료 508부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47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편 43.7%, 주부 56.3%였으며, 가족생활주기단계 중 자녀교육기 기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부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었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평균 182만원, 자가가 71.7%로, 1988년 경제

기획원 조사자료⁵⁰에 의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보다 약 3배 정도 높고 자가 소유 비율에 있어서도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의 주된 차입목적에서는 토지 및 주택 구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예견은 중집단이 46.2%로 가장 많고, 중상의 예견이 74.3%인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의 투자경험에 있어서는

평균 6개 정도의 투자경험이 있었고, 투자경험 만족도는 평균 중간 정도(3점)의 만족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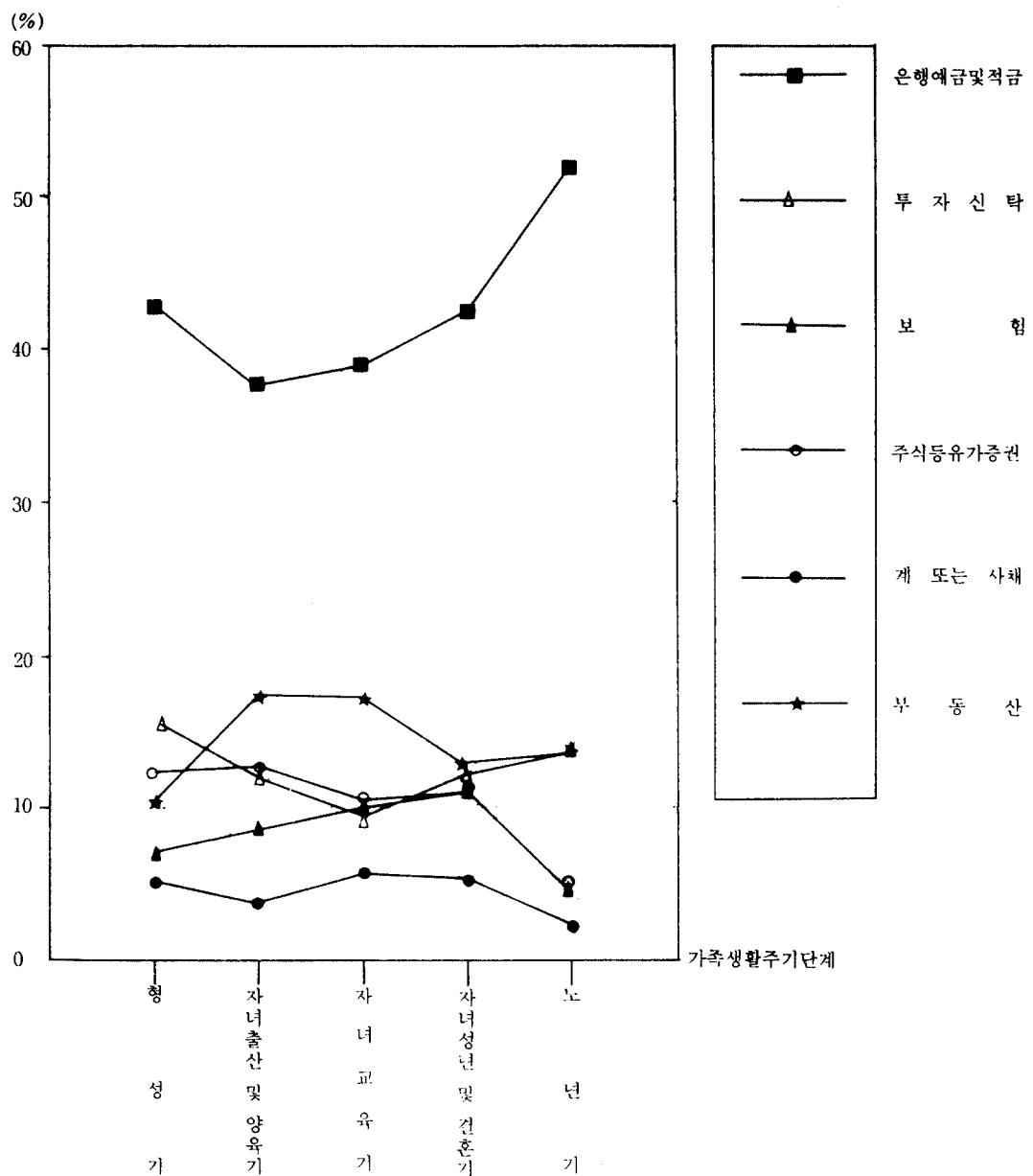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X²검정, F검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가계의 투자계획에서 가족생활주기별로 투자대상

(그림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투자대상의 선택



〈표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특성

단위 : %

가족생활주기 변 수		형성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 및 결혼기	노년기	N	X ²
주 부	29세 이하	84.4	46.7	0.6	0.0	0.0	474	718.18***
	30 - 39세	15.6	53.3	66.9	1.9	0.0		
	40 - 49세	0.0	0.0	32.5	49.1	0.0		
	50 - 59세	0.0	0.0	0.0	47.2	60.0		
	60세 이상	0.0	0.0	0.0	1.9	40.0		
	계 (n)	100.0 (64)	100.0 (100)	100.0 (160)	100.0 (108)	100.0 (35)		
남 편	29세 이하	53.1	21.5	0.0	0.0	0.0	474	913.14***
	30 - 39세	45.3	77.6	37.5	0.0	0.0		
	40 - 49세	1.6	0.9	59.4	25.0	0.0		
	50 - 59세	0.0	0.0	3.1	72.2	14.3		
	60세 이상	0.0	0.0	0.0	2.8	85.7		
	계 (n)	100.0 (64)	100.0 (100)	100.0 (160)	100.0 (108)	100.0 (35)		
가족수	2명	100.0	0.0	0.0	0.0	100.0	474	636.81***
	3명	0.0	64.5	15.6	12.0	0.0		
	4명	0.0	34.6	63.8	42.6	0.0		
	5명 이상	0.0	0.9	20.6	45.4	0.0		
	계 (n)	100.0 (64)	100.0 (100)	100.0 (160)	100.0 (108)	100.0 (35)		
	전 문 직	14.1	14.0	3.8	5.6	5.7		
직 업	관 리 직	1.6	1.9	0.6	0.9	0.0	474	91.02***
	전문 · 기술직	7.8	14.0	5.0	4.6	5.7		
	사 무 직	26.6	15.0	5.0	0.9	0.0		
	판매서비스직	3.1	1.9	7.5	0.9	0.0		
	주 부	46.9	53.3	78.1	87.0	88.6		
	계 (n)	100.0 (64)	100.0 (100)	100.0 (160)	100.0 (108)	100.0 (35)		
남 편	전 문 직	15.6	23.4	15.0	24.1	25.7	474	201.75***
	관 리 직	6.3	4.7	26.9	49.1	25.7		
	전문 · 기술직	15.6	15.0	8.8	10.2	14.3		
	사 무 직	59.4	53.3	45.6	12.0	5.7		
	판매서비스직	1.6	3.7	3.8	2.8	0.0		
	무 직	1.6	0.0	0.0	1.9	28.6		
직 업	계 (n)	100.0 (64)	100.0 (100)	100.0 (160)	100.0 (108)	100.0 (35)		
가 계 소 득	100만원 이하	31.3	26.2	18.8	7.4	5.7	474	59.05***
	110 - 180만원	43.8	39.3	38.1	19.4	37.1		
	190 - 250만원	12.5	16.8	23.1	44.4	28.6		
	260만원 이상	12.5	17.8	20.0	28.7	28.6		
	계 (n)	100.0 (64)	100.0 (100)	100.0 (160)	100.0 (108)	100.0 (35)		

(표 20에서 계속)

								단위 : %		
변 수		가족생활주기	형성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 및 결혼기	노년기	N	X ²	
재 산 수 준	집의 소유	자 가 타 가	28.1 71.9	53.3 46.7	79.4 20.6	97.2 2.8	94.3 5.7	474	125.99***	
		계 (n)	100.0 (64)	100.0 (107)	100.0 (160)	100.0 (108)	100.0 (35)			
	재산 정도	8,750만원 이하 8,751만원~ 4억 4천만원 4억 4천만원 초과	67.2 26.2 6.6	54.9 41.2 3.9	21.9 49.7 28.5	2.8 33.0 64.2	0.0 39.4 60.6	453		
부 채 수 준	부채 유무	유 무	50.0 50.0	58.9 41.1	48.8 51.3	37.0 63.0	17.1 82.9	474	23.24***	
		계 (n)	100.0 (64)	100.0 (107)	100.0 (160)	100.0 (108)	100.0 (35)			
	부채 정도	250만원 이하 251~500만원 501~1,700만원 1,701~3,500만원 3,500만원 초과	12.9 38.7 12.9 25.8 9.7	16.7 20.0 28.3 21.7 13.3	8.2 23.3 32.9 24.7 11.0	18.9 10.8 16.2 24.3 29.7	0.0 25.0 50.0 25.0 0.0	205		
		계 (n)	100.0 (31)	100.0 (60)	100.0 (73)	100.0 (37)	100.0 (4)			
미래 예 대한 예견	3 ~ 7점 8 ~ 9점 10~13점		26.6 51.6 21.9	29.9 42.1 28.0	23.1 50.0 26.9	25.0 39.8 35.2	25.7 51.4 22.9	474	6.89	
	계 (n)		100.0 (64)	100.0 (107)	100.0 (160)	100.0 (108)	100.0 (35)			
과 거 의 투	경험 정도	1 ~ 3개 4 ~ 6개 7 ~ 9개 10~15개	39.1 48.4 10.9 1.6	25.0 43.3 27.9 3.8	11.3 37.7 32.1 18.9	8.3 27.8 45.4 18.5	14.3 31.4 31.4 22.9	470	72.45***	
		계 (n)	100.0 (64)	100.0 (104)	100.0 (159)	100.0 (108)	100.0 (35)			
자 경 험	만 족 도	1.00~2.90 2.91~3.38 3.39 이상	18.8 45.3 35.9	32.7 38.5 28.8	37.7 39.6 22.6	30.6 39.8 29.6	8.6 37.1 54.3	470	22.62**	
		계 (n)	100.0 (64)	100.0 (104)	100.0 (159)	100.0 (108)	100.0 (35)			

P<.01, *P<.001

의 선택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모든 주기 단계에서 안전성이 높은 은행예금 및 적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I(형성기), V 단계(노년기)에서는 투자신탁이, II(자녀출산 및 양육기), III(자녀교육기), IV(자녀성년 및 결혼기), V 단계(노년기)에서는 부동산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및 사회심리적 특성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주부의 연령은 I 단계에서는 29세 이하, II, III 단계에서는 30대, IV 단계에서는 40대, V 단계에서는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남편의 연령은 I 단계에서는 29세 이하, II 단계에서는 30대, III 단계에서는 40대, IV 단계에서는 50대, V 단계에서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수는 I, V 단계에서는 2명으로 나타났으며, II 단계에서 IV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가족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직업은 I 단계에서 V 단계까지의 전단계에서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남편의 직업은 I, II, III 단계에서는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IV 단계에서는 관리직, V 단계에서는 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V 단계에서 무직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V 단계가 막내자녀 결혼 이후로서, 정년 후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소득은 I 단계에서는 180만 원 이하가 75.1%, II 단계에서는 180만 원 이하가 65.5%, III 단계에서는 110~250만 원이 61.2%, IV 단계에서는 190만 원 이상이 73.1%, V 단계에서는 110~250만 원이 65.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두 계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I 단계에서 IV 단계로 갈수록 소득은 증가하고 V 단계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재산 수준에 있어서 집의 소유는 I 단계에서만 타가가 71.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II, III, IV 단계로 갈수록 자가 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V

단계에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I 단계에서 IV 단계까지 증가하다가 V 단계에서 약간 감소하는 생애주기가설을 따르고 있다. 부채수준에 있어서는 III, IV, V 단계로 갈수록 부채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 정도는 I 단계에서는 251~500만 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II, III, V 단계에서는 501~1,700만 원, IV 단계에서는 3,500만 원 초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IV 단계를 정점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빚의 차입 목적을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토지 및 주택 구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I 단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과 전세 자금, II, III 단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IV, V 단계에서는 차입금 상환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I, II, III 단계에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내구소비재 구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는 부채 정도에서 251~500만 원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결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전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모든 단계에서 8~9점 사이의 중간태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과거의 투자경험에 있어서 경험 정도는 상상집단으로 갈수록 가족생활주기가 높은 단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대상에 대한 경험 정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투자경험 만족도는 I 단계에서 IV 단계까지는 2.91~3.38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V 단계에서는 3.39점 이상이 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만족도 점수 상집단에 있어서 I 단계에서 III 단계까지는 그 비율이 감소하다가 IV 단계에서 V 단계로 갈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투자경험 만족도는 신혼기에서 자녀교육기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투자경험의 증가로 인해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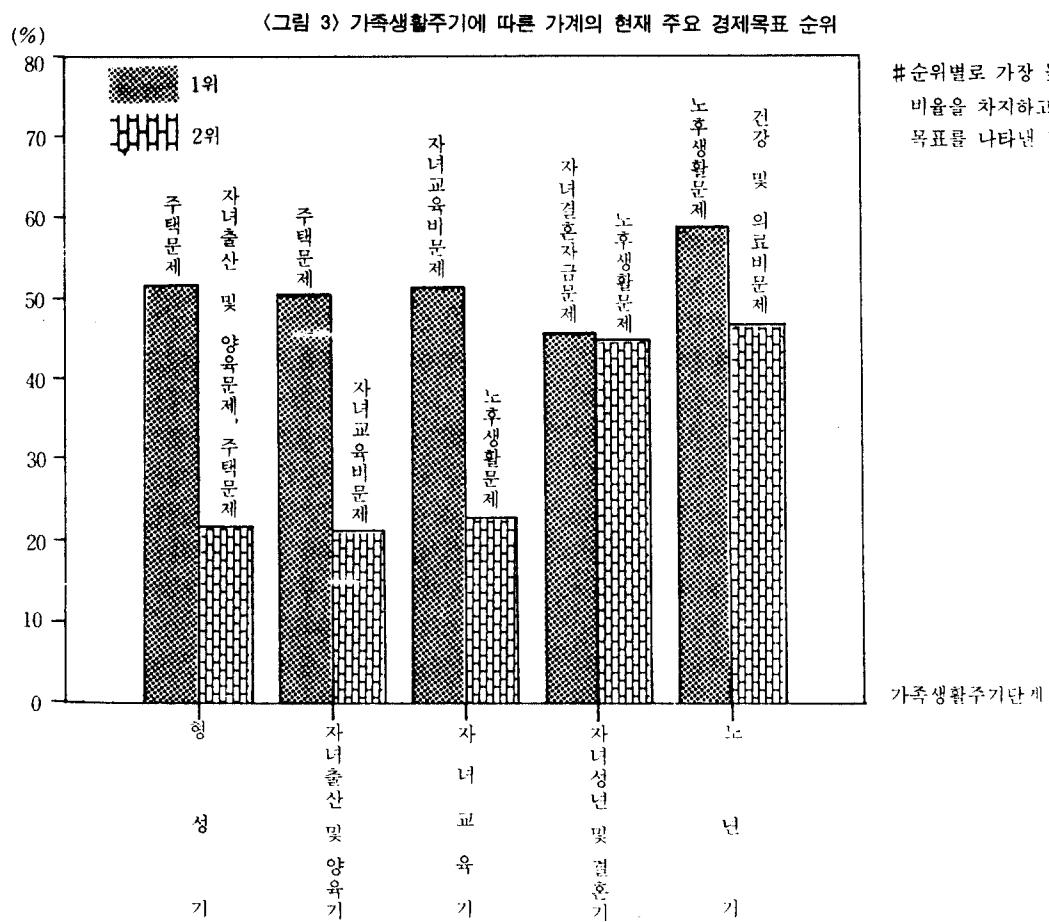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는 <그림 3>과 같다. 현재 주요 경제목표 중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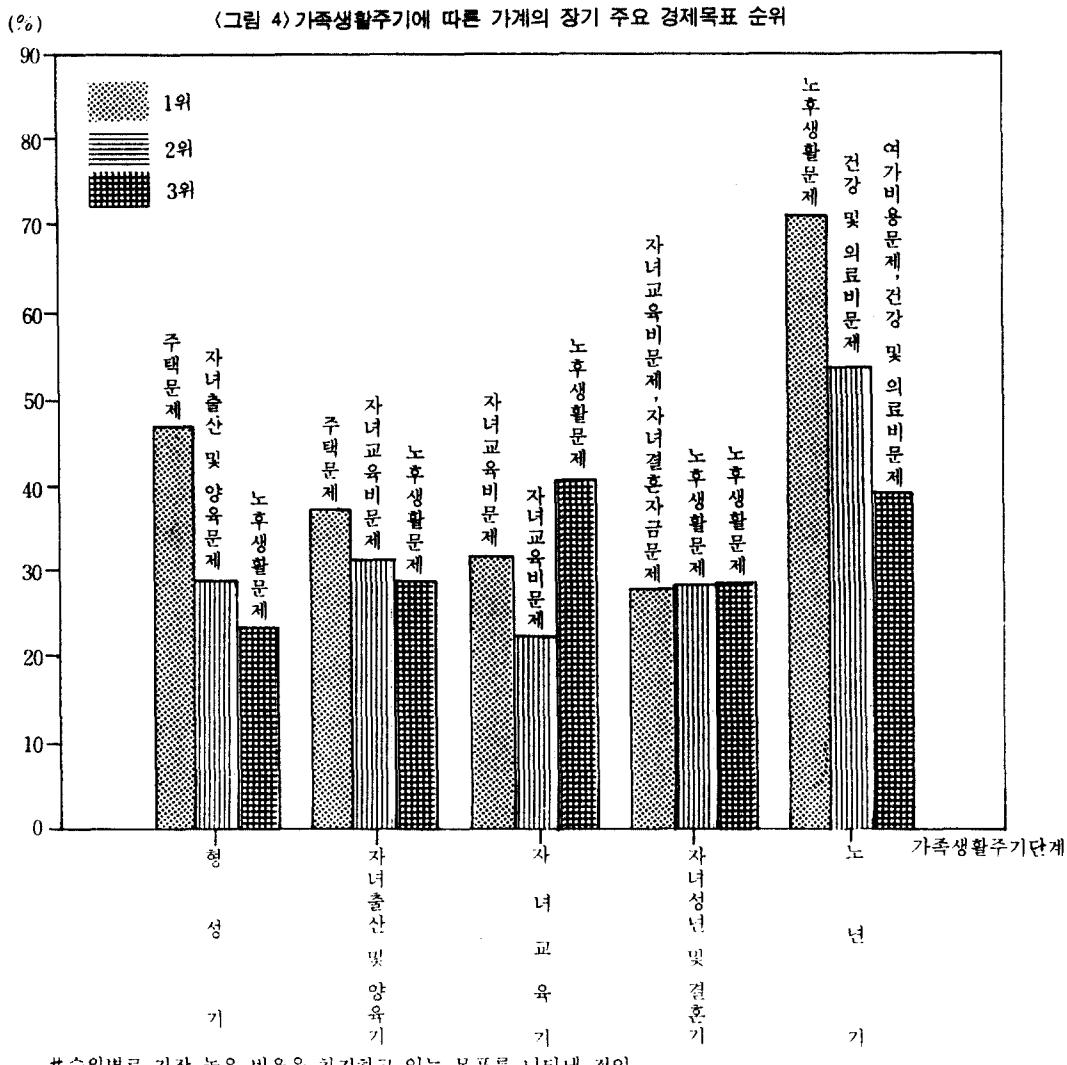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의 목표는 가족생활주기 I, II 단계에서는 주택문제, III 단계에서는 자녀교육비문제, IV 단계에서는 자녀결혼자금문제, V 단계에서는 노후생활문제로 나타났으며,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나타난 2위 목표의 특징은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장기 주요 경제목표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1위의 목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주요 경제목표는 I, II 단계에서 주택문제, III 단계에서 자녀교육비문제, IV 단계에서 자녀교육비문제와 자녀결혼자금문제, V 단계에서 노후생활문제였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나타난 2위의 특징은 현재 주요 경제목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III 단계를 제외하

고는 모든 단계가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단계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III 단계에서는 2위 역시 자녀교육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나타난 3위의 특징은 I 단계에서 IV 단계까지 노후생활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V 단계에서는 여가비용문제와 건강 및 의료비문제가 주요 경제목표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족생활주기 모든 단계에서 노후생활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투자계획 수립 여부는 I 단계에서 IV 단계까지는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가정이 더 많았으며, V 단계에서는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





는 가정이 54.3%로 약간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계획에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Beutler와 Sahlberg⁵⁶⁾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가족생활주기 단계 I 단계에서 IV 단계까지는 다음 단계들에서 예상되는 경제적인 지출 필요에 대비하여 장기의 투자계획을 세움으로써 가계의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일생에 걸친 효용극대화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V 단계에서는 지난날 저축, 투자하여 축적한 재산으로부터 소득을 지출하거나 저축재산 그 자체를 종식하면서 살아나갈 계획을 세

우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획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목표의 우선순위 설정에서 투자목표를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합산함으로써 어느 목표가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투자목표를 3순위까지 통합해서 보았을 때 I, II 단계에서는 주택자금 마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III 단계에서는 자녀교육비 마련, IV 단계에서는 자녀결혼자금 마련, V 단계에서는 노후

생활의 안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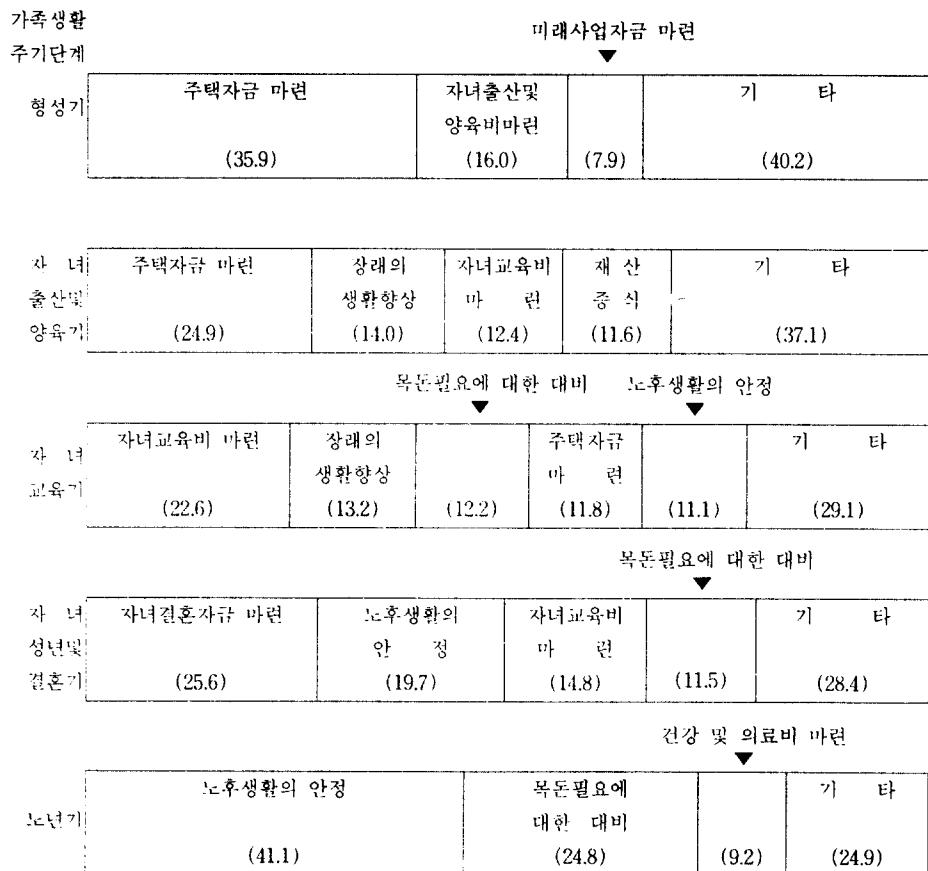
투자목표의 표준설정에서 투자목표를 위한 투자대상의 계획은 재산 증식성 투자목표를 제외한 모든 투자목표에서 안전성이 높은 은행예금 및 적금을 선호하였고, 재산 증식성 투자목표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높은 부동산과 투자신탁을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투자목표를 위한 투자대상의 매입시기와 투자기간, 월평균 가계소득 중 투자정도에 대한 계획을 투자목표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투자목표를 위한 투자대상의 매입시기는 모든 투자목표에서 현재 투자증인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가 현재의 주요 경제목표를 투자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그 목표를 위해 준비하-

고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목표를 위한 투자기간을 살펴보면, 내구재나 생활용품의 구입은 1년 이내의 단기계획 비율이 높았고, 목돈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3~5년의 중기계획, 노후생활의 안정에서는 5~10년, 장래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이나 부동산 매입계획은 주로 중·장기계획, 노후대비 경제계획은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는 비율이 높다는 이연숙⁵⁷⁾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투자목표를 위한 월평균 가계소득 중 투자정도는 자녀교육비 마련, 주택자금 마련, 여가비용 마련, 미래사업자금 마련 등의 목표를 위해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중 11~20%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이외의 목표

<그림 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투자목표

(단위 : %)



(표 3) 투자목표를 위한 투자 대상의 매입시기, 투자기간, 투자정도

		단위 : %																
		투자목표	불시의 목돈 필요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자녀 결혼 자금	주택, 부동산 구입	내구제, 생활용품 의 구입	여가 비용	노후 생활 안정	차입 금 상환	미래 사업 자금	재산 상속	장래 생활 향상	재산 증식	이자 소득	건강 및 의료비	기타
변수																		
매입시기	현재투자증	61.0	62.2	54.5	44.4	60.8	62.5	52.4	41.2	60.0	46.0	38.5	42.6	41.0	33.3	47.1	0.0	
	1년 이내	16.0	15.6	7.6	13.6	12.0	0.0	4.8	12.7	20.0	14.3	15.4	7.8	14.5	0.0	11.8	0.0	
	1~3년이내	14.0	8.9	18.2	22.2	12.8	12.5	19.0	18.2	4.0	15.9	7.7	18.6	18.1	33.3	23.5	100.0	
	3~5년이내	7.0	11.1	13.6	3.7	9.6	25.0	14.3	11.5	8.0	14.3	7.7	14.7	12.0	33.3	5.9	0.0	
	5~10년이내	2.0	2.2	6.1	12.3	4.0	0.0	4.8	12.7	4.0	4.8	30.8	8.5	13.3	0.0	5.9	0.0	
	10년 이상	0.0	0.0	0.0	3.7	0.8	0.0	4.8	3.6	4.0	4.8	0.0	7.8	1.2	0.0	5.9	0.0	
	계 (n)	100.0 (100)	100.0 (45)	100.0 (132)	100.0 (81)	100.0 (125)	100.0 (8)	100.0 (21)	100.0 (165)	100.0 (25)	100.0 (63)	100.0 (13)	100.0 (129)	100.0 (83)	100.0 (3)	100.0 (17)	100.0 (1)	
	투자기간	1년 이내	12.5	11.6	5.6	7.8	5.0	37.5	0.0	6.2	8.3	3.2	7.7	5.6	9.9	33.3	0.0	0.0
	1~3년이내	26.0	48.8	17.5	22.1	34.5	37.5	25.0	14.2	45.8	25.4	15.4	12.7	23.5	33.3	35.3	100.0	
	3~5년이내	36.5	20.9	33.3	37.7	33.6	12.5	25.0	19.8	16.7	33.3	0.0	21.4	28.4	0.0	29.4	0.0	
	5~10년이내	12.5	11.6	23.8	28.6	22.7	12.5	20.0	33.3	20.8	22.2	30.8	24.6	19.8	33.3	11.8	0.0	
	10년 이상	12.5	7.0	19.8	3.9	4.2	0.0	30.0	26.5	8.3	15.9	46.2	35.7	18.5	0.0	23.5	0.0	
	계 (n)	100.0 (96)	100.0 (43)	100.0 (126)	100.0 (77)	100.0 (119)	100.0 (8)	100.0 (20)	100.0 (162)	100.0 (24)	100.0 (63)	100.0 (13)	100.0 (126)	100.0 (81)	100.0 (3)	100.0 (17)	100.0 (1)	
투자정도	10% 이하	46.5	48.8	31.3	33.3	19.8	87.5	20.0	43.8	32.0	24.6	45.5	42.7	36.0	66.7	43.8	0.0	
	11~20%	24.2	37.2	33.6	32.1	28.1	0.0	45.0	26.5	24.0	31.1	27.3	24.2	30.7	33.3	37.5	100.0	
	21~30%	25.3	9.3	26.0	20.5	21.5	0.0	20.0	16.0	24.0	17.9	9.1	16.1	14.7	0.0	12.5	0.0	
	31~40%	0.0	2.3	7.6	10.3	17.4	0.0	10.0	9.9	16.0	11.5	18.2	12.9	10.7	0.0	6.3	0.0	
	41~50%	3.0	2.3	0.8	3.8	5.8	12.5	5.0	3.1	0.0	1.6	0.0	3.2	2.7	0.0	0.0	0.0	
도	50% 이상	1.0	0.0	0.8	0.0	7.4	0.0	0.0	0.6	4.0	3.3	0.0	0.8	5.3	0.0	0.0	0.0	
	계 (n)	100.0 (99)	100.0 (43)	100.0 (131)	100.0 (78)	100.0 (121)	100.0 (8)	100.0 (20)	100.0 (162)	100.0 (25)	100.0 (61)	100.0 (11)	100.0 (124)	100.0 (75)	100.0 (3)	100.0 (16)	100.0 (1)	

#투자정도는 월평균 가계소득 중 계획하고 있는 투자비율을 의미함.

를 위해서는 월평균 가계소득 중 10% 이하를 투자할 계획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불시의 목돈 필요에 대한 대비, 자녀교육비 마련, 자녀결혼 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여가비용 마련, 차입금 상환 등의 목표에서 월평균 가계소득 중 21~30%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정이 20%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목표에 대한 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4)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에 따른 투자계획

가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에 따른 투자계획은 P < .001의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가 자녀출산 및 양육문제, 자녀교육비문제, 자녀결혼자금문제, 주택문제, 노후 생활문제, 빚청산문제, 사업자금문제인 경우 그 경제 목표를 위해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 즉, 가계는 그 가계 특유의 경제목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요구가 계획 수립의 절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eutler와 Sahlberg,⁵⁸⁾ Beutler와 Mason⁵⁹⁾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재 주요 경제목표가 여가비 용문제인 경우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주요 투자목표로 갖고 있는 가계가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

〈표 4〉 가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에 따른 투자계획

(N=356) 단위 : %

투자계획 \ 경제목표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자녀 결혼자금	주택	내구재, 생활용품의 구입	여가 비용	건강 및 의료비	노후 생활	빚청산	사업 자금	기타
불시의 목돈 필요	12.9	17.6	10.5	6.4	50.0	30.0	57.1	23.8	9.5	10.7	
자녀 출산 및 양육	32.3	3.9								4.8	
자녀 교육	6.5	40.2	2.6	4.3						9.5	3.6
자녀 결혼자금		3.9	55.3			10.0	14.3				
주택, 부동산 구입	25.8	8.8		62.8					19.0	7.1	
내구재, 생활용품의 구입				1.1							
여가 비용						10.0					3.6
노후 생활 안정			5.9	13.2	2.1		40.0		47.6		3.6
차입금 상환	3.2	2.9		1.1						33.3	
미래사업자금	6.5	3.9	2.6	3.2			14.3	9.5	9.5	42.9	50.0
장래 생활 향상	9.7	9.8	5.3	8.5				4.8	9.5	7.1	
재산 증식	3.2	2.9	10.5	10.6	50.0	10.0		14.3	4.8	21.4	50.0
건강 및 의료비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1)	(102)	(38)	(94)	(2)	(10)	(7)	(21)	(21)	(28)	(2)

 $\chi^2 = 662.62, P < .001$

투자계획은 투자목표를 의미함.

타냈으며, 현재 주요 경제목표가 건강 및 의료비문제인 경우 주요 투자목표로서 불시의 목돈 필요에 대한 대비가 57.1%의 비율을 차지하여 경제목표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 가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에 따른 투자계획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불시의 목돈 필요에 대한 대비, 내구재·생활용품의 구입, 재산상속, 장래의 생활향상, 이자소득, 기타를 제외한 모든 투자목표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가계가 경제목표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경제목표는 그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투자목표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목표는 현재 경제목표에 관계없이 투자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재 주요 경제목표와 투자목표가 일치하는 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간에 투자목표에 따른 표준설정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일치집단의 경우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대상의 선택과 투자대상의 투자정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일치집단의 경우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대상의 투자기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일치집단과 비일치집단 모두에

〈표 5〉 가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에 따른 투자계획의 차이

변수 \ 투자계획	불시의 목돈 필요	자녀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자녀 결혼자금	주택, 부동산 구입	내구재, 생활용품의 구입	여가 비용	노후 생활 안정	차입금 상환	미래 사업자금	재산 상속	장래 생활 향상	재산 증식	이자 소득	건강 및 의료비	기타
현재 주요 경제 목표	***	***	***	***	***	***	***	***	***	***	*		***			

*P<.05, ***P<.001

서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대상의 매입시기는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목표와 투자목표의 일치집단에서는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대상과 투자정도가 달라지고, 현재 목표와 투자목표의 비일치집단에서는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중요하게 인식한 경제목표를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투자목표를 설정한 가계는 투자계획단계에서 투자목표에

자목표의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주요 경제목표를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투자목표를 설정한 가계는 투자계획단계에서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대상과 투자정도를 결정하므로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계 저축 및 투자대상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계 투자계획 지

〈표 6〉 집단간 현재 주요 경제목표와 투자목표의 표준설정 차이

투자목표 표준설정	일치집단의 투자목표	비일치집단의 투자목표
투 자 대 상	**	
매 입 시 기		
투 자 기 간	*	
투 자 정 도		**

* $P < .05$, ** $P < .01$

비추어 투자대상과 투자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가계소득과 재산수준은 점차 상승하였으나 노년기에 감소하였고, 가계의 투자경험 만족도는 형성기에서 자녀교육기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투자경험의 증가로 인해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원변화와 더불어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도 변화하는데, 가족생활주기 전반기에는 주택문제, 중반기에는 자녀교육 및 결혼문제, 후반기에는 노후생활문제가 주요 경제목표로 나타났다. 가계의 투자계획에서도 형성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주택자금 마련, 자녀교육기에는 자녀교육비 마련, 자녀성년 및 결혼기에는 자녀결혼자금 마련, 노년기에는 노후생활의 안정이 주요 투자목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자원 축적과 경제목표가 변화하고, 가계가 주요 경제목표로 인식한 경제목표는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투

침을 제시할 수 있는데, 1단계는 가계의 현재 주요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형성기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는 주택마련계획, 자녀교육기에는 자녀교육계획, 자녀성년 및 결혼기에는 자녀결혼계획, 노년기에는 여가, 건강, 노후생활계획을 수립하며, 2단계로는 다음 가족생활주기의 경제적 필요에 대비하여 형성기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계획, 자녀출산 및 양육기와 자녀교육기에는 자녀교육계획, 자녀성년 및 결혼기와 노년기에는 노후생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단계는 인생 전반에 걸친 장기계획으로, 형성기에서 노년기까지 노후생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3단계 계획은 가계의 장기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세시한 것으로, 가계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적인 진행을 통하여 가정경제의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부각되는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에 초점을 두어 가계가 필요로 하는 경제문제 및 계획에 대한 방법상의 개선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부각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계의 장기 투자계획과정 지침

이 개발되어야 하고, 가계의 재정계획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가족생활주기는 어느 한 시점을 통해서 연구하는 횡단분석법에 기초하였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종단분석법을 사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핵가족을 대상으로 부부 중 주로 투자계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차이를 주로 보기 위하여 부부의 교육수준을 대졸 이상으로 통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 가족형태, 지역에 따라 투자계획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세째,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와 가계의 투자계획이라는 특정부분의 계획과정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정경제, 가사작업, 자녀양육, 구매 영역에서의 세분화된 계획 연구가 요구된다. 네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주요 경제목표와 투자계획 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정교화된 연구모형을 위하여 축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문숙재, "도시 주부의 저축행동에 관한 연구", 『총』, 제46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5, p. 239.
- 2) 김순미, "도시 가계의 금융자산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6에서 재인용.
- 3) Deacon, R. L. and E. M. 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Mass : Allyn & Bacon, Inc., 1988, p.76.
- 4) Rice, A. M. and S. M. Tucker,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6, pp.152~154.
- 5) Paolucci, B., O. A. Hall and N. W. Axinn,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Y.: John Wiley & Sons, Inc., 1977, p.136.
- 6) 문숙재, "가정관리이론 정립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Ⅰ)", 이화 가정학 60주년 기념 교수 논문집, 1990, pp.138~139.
- 7) Rice, A.M. and S.M.Tucker, 1986, p.151.
- 8) 이연숙, "도시 가족의 가정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Ⅰ): 계획영역에 따른 계획의 차원 분석을 중심으로", 대학가정학회지, 제21권 4호, 1983a, p. 141에서 재인용.
- 9) Beard, D. and F. M. Firebaugh, "Morphostatic and Morphogenet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ERJ, Vol.6, No.3, 1978, p.193.
- 10) Buehler, C. and M. J. Hogan, "Planning Styles in Single-Parent Families", HERJ, Vol.14, No.4, 1986, p.355.
- 11) 이연숙, 1983a, p.140에서 재인용.
- 12) Gross, I. H., E. W. Crandall and M. M.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1980, pp.203~204.
- 13) 이연숙, 1983a, p.140.
- 14) 최현자, 최은숙,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2호, 1986, p. 37에서 재인용.
- 15) 조희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1984, p.59에서 재인용.
- 16) Deacon, R. L. and E. M. Firebaugh, 1988, p.185.
- 17) 유영주, "한국 도시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1984, pp.118~119 ; pp.127~128에서 재인용.
- 18) 조희금, 1984, p.59에서 재인용.
- 19) 김병주, 한국인의 장기생활설계연구, 서울 : 저축 주간중앙위원회, 1980, pp.210~211.
- 20) 유영주, 1984, p.125.
- 21) Ando, A. and F. Modigliani,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3, No.1, 1963, pp.55~72.
- 22) Hefferan, C.,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ERJ*, Vol.11, No.1, 1982, p.48.
- 23) Deacon, R. L. and F. M. Firebaugh, 1988, pp. 130~131.
- 24) 문숙재, 1985, p.239.
- 25) 최현자, 최은숙, 1986, pp.49~50.
- 26) 김순미, 1987, p.10에서 재인용.
- 27) 이건희, 「현대투자론」, 서울 : 대왕사, 1989, p.27.
- 28) 이성순, 「현대투자론」, 서울 : 법문사, 1984, pp. 28~34.
- 29) Williams, F. L. and S. L. Manning, "Net Worth Change of Selected Families", *HERJ*, Vol.1, No. 2, 1972, p.112.
- 30) 김영숙, "장기 생활 설계를 위한 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 1983, p.62 ; p.69.
- 31) 문숙재, 1985, p.239.
- 32) 홍향숙, 이기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1호, 1989, p.13.
- 33) Varcoe, K. P.,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CSHE*, Vol.14, 1990, pp.61~63.
- 34) Deacon, R. L. and F. M. Firebaugh, 1988, pp. 76~92.
- 35) Rice, A. M. and S. M. Tucker, 1986, pp.341~389.
- 36) 이건희, 1989, p.27.
- 37) Beutler, I. F. and K. M. Sahlberg, "Spending Plans and the Family Managerial Decision Process", *ACR*, Vol.11, 1981, p.485.
- 38) Buehler, C. and M. J. Hogan, 1986, p.351 ; p. 360.
- 39) Titus, P. M., A. M. Fanslow and T. K. Hira,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ERJ*, Vol.17, No.4, 1989, p.314.
- 40) Marlowe, J. and G. B. Sproles, "Economic Determinants of Family Development Processes", *JCSHE*, Vol.10, 1986, p.66.
- 41) Deacon, R. L. and F. M. Firebaugh, 1988, p.152.
- 42) Williams, F. L. and S. L. Manning, 1972, p.112.
- 43) Davis, E. P. and W. R. Schumm, "Savings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Savings : A Comparison of Low-and High-income Groups", *HERJ*, Vol.15, No.4, 1987, p.247.
- 44) Hira, T. K.,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CSHE*, Vol.11, 1987, p.184에서 재인용.
- 45) Hefferan, C., 1982, p.48.
- 46) 김순미, 1987, p.46.
- 47) 박재윤, "서울 근로자 가계의 저축행태", 경제논집, 제17권 2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78, p.205.
- 48) 배무기, "서울 근로자 가계의 저축행태", 경제논집, 제17권 2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78, p.174.
- 49) 박순희, "저축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41 ; p.43 ; p.50 ; p. 52.
- 50) 이연숙, "도시 가족의 가정생활에 관한 계획의 연구(Ⅱ) : 주부의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계획의 차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 1983b, p.3에서 재인용.
- 51) 김병주, 1980, pp.134~135.
- 52) 홍향숙, 이기춘, 1989, p.13.
- 53) 박순희, 1985, p.29에서 재인용.
- 54) Rice, A. M. and S. M. Tucker, 1986, p.153.
- 5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 가계 연보」, 1988, pp.160~161.
- 56) Beutler, I. F. and K. M. Sahlberg, 1981, p.485.
- 57) 이연숙, 1983a, p.144.
- 58) Beutler, I. F. and K. M. Sahlberg, 1981, p.485.
- 59) Beutler, I. F. and J. W. Mason, "Family Cash-flow Budgeting", *HERJ*, Vol.16, No.1, 1987, p. 3.